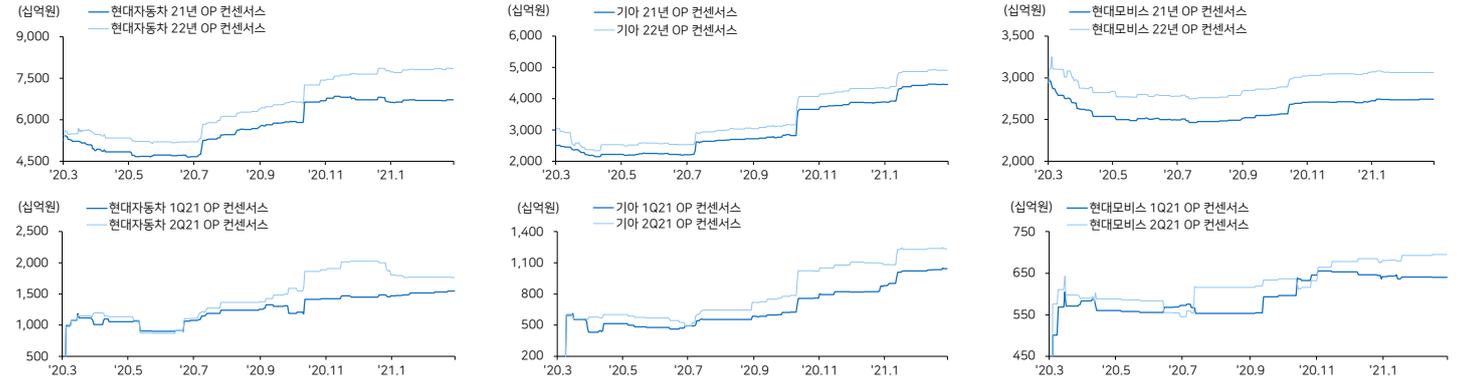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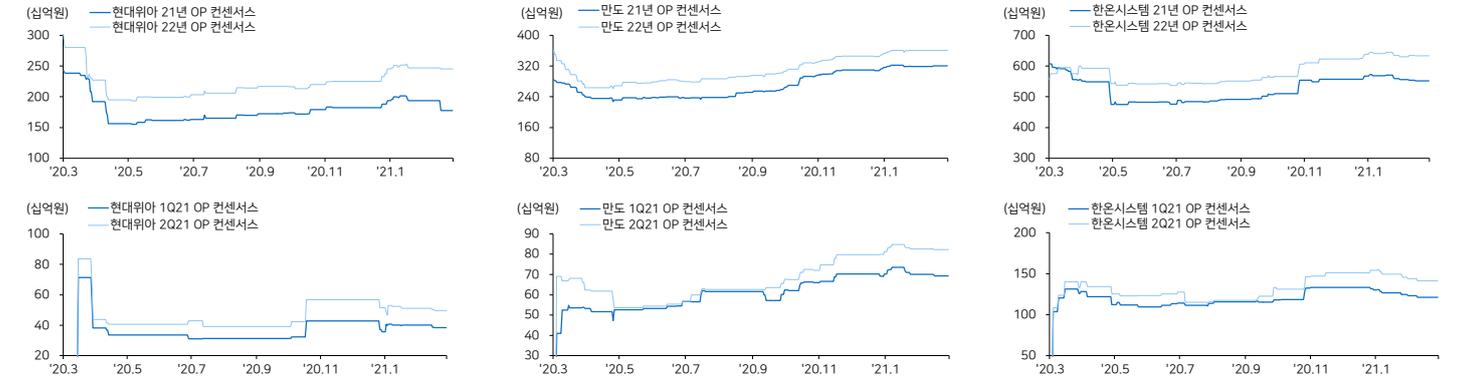


##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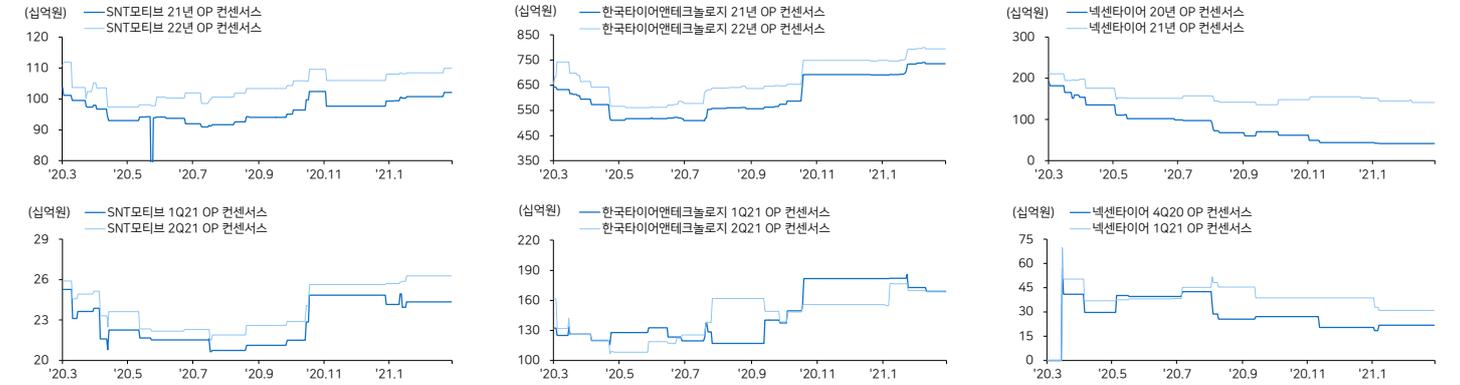
###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 유럽·중국 진출 앞둔 제네시스...SUV·전기차'로 벤츠·BMW 아성 캔다 (아시아투데이)

지난해 10만 대의 판매량을 넘어서 제네시스는 올해 연간 20만대 판매량을 목표로 설정. 기존 세단 중심의 라인업을 SUV로 확장한 데 이어 신형 전기차를 투입해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올해 유럽과 중국 시장 개척이 기대됨.  
<http://bit.ly/3tpTfCU>

### 현대차 美 앨라배마 생산 '투싼' 멕시코 출격 (THE GURU)

현대자동차가 멕시코 시장에 신형 투싼을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돌입.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SUV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멕시코에 공급되는 투싼은 미국 앨라배마공장에서 생산할 예정.  
<http://bit.ly/3qrDKbZ>

### 정부, 반도체 수출 대응책 시행 속도전 (매일경제)

정부는 단계적으로 기업의 원활한 해외 조달을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관련 핵심 기술 개발 및 생산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여 반도체 불확실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대응책 시행에 속도를 내는 중.  
<http://bit.ly/3loO62a>

### 전기차 후발업체들, 초단기 고속성장 기대감...구급 아성 넘을까 (해럴드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어, 어라이벌 등 전기차 업체들이 3년 내 100억\$ 수익을 내겠다고 밝힘. 최근 SPAC 상장 붐이 일면서 대거 등장한 전기차 스타트업들은 첫 스타트업들 중 최고 수익에 100억달러 수익에 8년이 걸린 구글의 기록을 깨려는 포부.  
<http://bit.ly/3tnW1PL>

### 부품 공급 차질에...기아차 광주공장 전면 가동 중단 (연합뉴스)

호원 노조 조합원이 이날 오전 공장 정거 농성에 들어가면서 부품 생산과 반출이 막힌 영향으로 기아차 광주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이 16일 오후 전면 중단됨. 생산이 중단된 차종은 주력 차종인 셀토스, 쏘울, 스포티지 등.  
<http://bit.ly/38KbdPu>

### 현대차 파트너 '카누, 전기 픽업 트럭 공개 (THE GURU)

현대차와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 중인 미국 스타트업 '카누'가 EV 픽업트럭을 공개하고, 올해 2분기부터 사전 주문을 받는다고 밝힘. 해당 모델은 최고출력 600마력에 1회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 300마일 이상으로 제작될 계획.  
<http://bit.ly/3elO57D>

### GM 크루즈, 자율주행 스타트업 '보이지' 인수 합의 (연합뉴스)

제너럴모터스(GM)의 자율주행 자회사 크루즈가 은퇴 주거단지 내 운영에 주력해온 자율주행 스타트업 '보이지'(Voyage)를 인수했다고 CNBC가 보도함. 보이지의 CEO를 비롯한 직원 대부분도 크루즈로 옮길 예정.  
<http://bit.ly/3tqfHTm>

### 테슬라, 중 생산량 확대...부품 공정 개선 (ZDNet Korea)

테슬라는 상하이 정부 홈페이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상하이 기가팩토리의 공정을 개조해 생산량을 확대한다고 밝힘. 전력 시스템 및 새시, 모터 등 제조 프로세스를 개선할 계획이며, 중국 내 전기차 수요에 적극 대응 의지로 해석됨.  
<https://bit.ly/3eNE0E7>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